



# 연합노보



한해를 보내는 소회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 조합원들의 소회를  
 옮겨 보았다.

3면

2005

제 호  
179

12.28 수

www.newsunion.co.kr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종로구 수송동 85-1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정재용 · 편집인 도광환

## “공모제 · 사장추천위 계승 위해 힘 모으자” 1월 중순 현 경영진 경영성과 평가도..

노조는 2006년 초로 예상되는 차기 경영진 선임과 관련, 사장 추천위 구성을 통한 공모제 방식의 사장추천 전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재용 위원장은 28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병술년 새해에는 그 어느해 보다도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차기 경영진 선임과정에서 사장추천위 구성을 통한 공모제 방식의 전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차기경영진 선임과정에서 사내갈등이 빚어

져 연합뉴스의 발전역량이 소진되는 일이 발생해선 결코 안된다”며 “노조는 사장 선임과정에서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뉴스통신진흥회의 1대 주주가 되기 위한 주식환수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창우 이사를 비롯한 진흥회 이사진들에게 사장추천위 구성을 바라는 조합과 사원들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11월 29일 이창우 이사를 만나 “공모제 및 사장추천위 구성을 통한 경영진 선임방식은 지난

2003년 현 경영진 선임과정에서 연합뉴스 사원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어렵게 만든 전통”이라고 공모제와 사장추천위 구성을 요청했다.

노조는 1월 중순께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현 경영진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시 차기 경영진 선임방식에 대한 항목도 포함시켜 조합원들의 의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뉴스통신진흥회 정관에도 ‘이사회는 연합뉴스사의 대표 이사를 추천할 때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제 14조 4항)고 명시돼 있다. ■



## 2005년 임단협 공식발효.. 기본급 5.91% 인상

2005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노사 대표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 정재용 위원장과 장영섭 사장은 지난 9일 조인식을 갖고 기본급 5.91%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협약과 대휴이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안에 서명했다.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5.91%인상, 직책수당 직급별로 5~17만원 인상, 근속수당 정액 3만원 인상, 연봉사원 수당체계 조정, 1~4급 사원 기본급 호봉액 조정, 야근수당 증액 등이다.

노사는 또 단체협약을 통해 대휴 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일요일 과다 근무자들의 고

충을 해소하기 위해 대휴이행제(보상휴일 권고제)를 새로 도입했으며, 장기근속 휴가자들에게 근무연한별로 30~5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기로 합의했다.

또 특파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금액도 각 지역 실질조사를 마치는 대로 일정 부분 증액기로 합의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사우회 대출금리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노사는 임단협과는 별도로 현지 사무실이 없는 특파원 지역의 경우 신문구독료를 회사가 지급기로 했으며 일부 출입처 및 부서의 취재(영업)교통비도 증액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단체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원 배우자 건강검진 문제는 노조의 양해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지난 1일 제2차 임단협 전체회의를 열어 ‘2005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안’을 잠정타결했으며, 노사 잠정합의안은 지난 7일 열린 제3차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



9일 오후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정재용 노조위원장과 장영섭 사장이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 ● 보고싶은 고전 · 명작 건의해 주십시오 ●

노조가 조합원 복지사업의 하나로 시행중인 비디오.DVD대여 서비스가 올해에도 무리없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월 노보를 통해 밝힌대로 일부 사원들의 물지각과 기억력 한계(?) 탓에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지만 비디오.DVD대여 서비스는 조합원 및 사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누려 왔습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비디오 103편과 DVD 106편 등 총 209편을 신규구입했으며 앞으로도 매달 초 새로운 작품들을 구입.비치할 것입니다.

새로 개봉된 영화 이외 오래된 명작이나 고전 등 특별히 보고싶은 작품들이 있으면 노조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사원이면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무료로 비디오와 DVD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노보만평

반종빈



바나



최전선에서

# “기사의 보조개념이 아닌 그래픽 주도의 ‘그 무엇’을 항상 찾아”

그래픽뉴스팀이 4층에서 어디로 옮겨갔는지 아직 모르는 분도 있다. 3층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긴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팀이다. 들어오면 아마도 놀랄 것이다. 엄청난 열기(?)에...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는 열정은 물론이고 개인당 최소 3개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기가 더 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곳에서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취재기자는 기사로, 사진기자는 사진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픽기자는 그래픽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다.

얼마 전 모 신문이 그래픽을 강화한다고 한 기사를 본적이 있다. 뭔가 잘 안 풀리는 것을 타개하기 위한 문제점을 ‘그래픽적이지 못한’ 지면에서 찾았을까? 그렇다면 이 분들이 신문그래픽의 중요성과 제대로 된 활용에 눈을 뜨게 된 것일까? 답은 아니다. 그 이유는 많지만 간단히 말하면 아직도 신문그

래픽에 대해 국내 언론이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다. 빈번한 세미나도 한번 없었다. 그만큼 우리 신문들의 그래픽에 대한 인식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자화자찬이라 부끄럽지만 우리팀은 2002 한일 월드컵 때 특집 그래픽으로 ‘한국기자상’까지 받았다. 한국언론사상 신문편집미술분야와 관련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열정’이다.

팀원 4명을 이끄는 장팀장은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다. 팀원들에게 기사의 보조 개념이 아닌 그래픽이 주도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늘 강조한다. 한마디로 피곤하다. 때로는 너무 일이 많아 힘들어서 그저 단순하게 전달자의 역할에 안주하고 싶을 때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 무엇’ 때문에 열정을 소모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전승엽 그래픽뉴스팀

교도통신과 그래픽 교류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의 하나는 인원이 27명이나 되는 교도그래픽부도 한편으론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인원은 5명밖에 없지만 연합뉴스 그래픽팀의 기획기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작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상품인 액티브뉴스(움직이는 그래픽)는 아직도 시장여건이 좋지 않아서 힘이 많이 들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꾸려가고 있다. 여기에도 월드컵이 있는 내년에는 모바일 관련 그래픽상품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시범서비스 중이다.

한 가지 회사에 바랄게 있다면 이런 미래에 대한 방향성 제시는 회사 측에서 먼저 제의해주고 끌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제작만 하기에 지치고 힘든데 여기에도 돈을 벌기위해 신상품 개발을 기획하고 뛰어다니기에는 너무나 벅하다.

## 농치기 쉬운 단체협약 내용들

노조와 회사는 2년마다 열리는 단체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개정한다. 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협과 관련된 일부 조항의 내용들을 개정하거나 수정·폐지하고 있다.

단체협상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항들 가운데 농치기 쉬운 조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본다. 단체협약은 노조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 있다.

▲ 제21조 2항

— 기사제작 및 간행물의 편집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편집장부 3명과 조합대표 3명으로 구성되는 <공정보도 협의회>를 둔다.

▲ 제36조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총8개호 가운데 3개호만 기술함)

△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조합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 만 5년이상 재직한 조합원이 회사업무수행과 관련, 자비로 해외연수(유학포함)나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할 때

△ 가족중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가족을 간호할 필요가 발생한 남녀조합원이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때

▲ 제48조

— 회사는 토·일요일에 월 5회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취재·업무 등의 사유로 대휴를 1 회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해당 조합원에게 보상휴일 대상자

임을 통보하고 아래의 일수에 해당하는 보상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월 5~6회 토·일요일근무자 1일 부여

월 7~8회 토·일요일근무자 2일 부여

— 전항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의 부서장은 해당 조합원이 보상휴일을 원할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52조 3항

—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하루에 통상임금 1/20을 휴가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제56조

— ①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공로를 세웠거나 포상, 표창을 받았을 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 ②회사는 조합원이 타 지방으로 전근할 경우 필요한 기간 만큼 휴가를 준다.

▲ 제64조

— 조합원의 부서배치 전환, 임금체계의 변경 또는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나 명목으로도 기본급을 저하시킬 수 없다.

▲ 제65조

— 회사는 만 1년이상 근속한 자가 해고되었을 때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평균임금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평균임금×(근속년수+(근속년수-5)×0.7)

다만 5년이하 근속자는 평균임금×근속년수.

▲ 제66조

— 조합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 제90조

— 회사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공개모집, 사장추천위 방식으로 사장이 선임되도록 노조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조는 관련 조합원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제95조

—회사는 임신한 여성조합원에게 6개월까지는 월 1회, 7개월 이후 월 2회의 정기검진휴가를 부여한다.■

이달의 참글상

### 이달의 참글상에 격려상 1편 선정

노조 공정보도위원회(간사 권정상)는 27일 제113회 이달의 참글상(11월 송고분)에 이동철 조합원(스포츠투저부)의 「성심학교 청각장애 야구선수들의 ‘소리없는 함성’」을 격려상으로 선정했다.

이조합원의 「성심학교 청각장애...」는 소외된 장애인 야구선수들의 진로에 대한 걱정을 애정어린 시각으로 취재한 기사로 지난 2003년 한차례 기사화한 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딱한 사정을 후속취재한 점이 돋보였다.

격려상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12월 송고분에 대한 이달의 참글상 마감은 1월 13일(금)까지다.



## 한해를 보내는 소회

### “연합뉴스 위력 · 책임감 실감”

26일 오전 1시 강남경찰서 기자실. “보고는 좀 제때 하지?” “지하철이랑 소방서는 체크하나? 전통은?” “넌 그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나? 개네들이 술 마시고 왜 싸웠대?”

주변에서 수습을 갈구는(?) 타사 1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보고를 하며 바짝 쫓아 있을, 1분이라도 빨리 보고를 끝내고 잠을 자고 싶어할 수습의 모습이 눈 앞에 선하다.

불과 8~10개월 전 내 모습이, 또 지금은 각자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동기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으니까.

‘연합뉴스’ 네 글자가 박힌 명함을 가지게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처음 회사에 들어와서 받은 일주일간의 교육,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엄밀히 말하면 10분이라도 더 자려고 안 씻었지만) ‘교복’으로 불린 두꺼운 패딩 잠바를 입고 경찰서를 돌아다녔던 1백일의 사회부 수습 생활, 다시 못 올 ‘황금기’라고 불렀던 한달간의 부서 순환 교육을 마치고 사회부 사건팀으로 발령받은 게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그 사이에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다.

로버트 김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을 찾았고 ‘대한민국의 우상’이었던 황우석 박사가 ‘전세계를 속인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또 여의도 농민 시위에 참가했던 전용철씨와 홍덕표씨가 경찰의 폭력으로 숨졌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그 하루하루를 기록하면서 새삼 연합뉴스의 위력을, 또 그만큼의 책임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도 옆에선 H사와 K사 당직 선배가 수습의 보고를 받고 있다.

“그래, 들어가고 다음 사람 빨리 보고하라고 그래”

나도 이제 야근 ‘마와리’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겠다. 내일 시판판에는 우리 기사가 얼마나 전재가 됐을까. 누락 기사는 없었으면... ■



장하나 사회부

### “노조, 친근한 비디오가게로 남기를”

연합뉴스에 2004년 1월 입사했으니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노조에 대해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다. 매달 한차례 갓 태어난 노보와 사보가 동시에 사무실에 도착하면 항상 먼저 손이 가는 것은 사보였다. 그러고서 사보 4페이지 끝에 있는 ‘신혼기’를 정독한 뒤 틈틈이 나머지 글을 모두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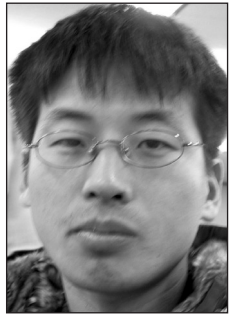
반면 노보는 글의 제목만 대충 훑어보고 그 중에 관심가는 것만 한두개 읽는 수준이었다. 사보가 훨씬 크고 예쁘게 만들어져 보기에 좋다는 단순한 생각에서였을까. 아무튼 노보를 열심히 읽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노조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조에 대한 관심은 마음 속에서 알게 모르게 커왔던 게 아닌가 싶다. 그냥 묵묵히 옆에서 일하는 선배가 노조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음을 나중에 알았을 때, 가끔 회사의 어떤 결정사항에 관한 투표 용지를 받을 때, 노조란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냥 회사에 같이 있는 선·후배 동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그동안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노조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비디오 테이프’다. 입사한 뒤 노조 사무실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준다는 말을 듣고 의외란 생각이 들었다.

2004년 여름 축구 연습후 축구공을 갖다 놓으려 우연히 들른 노조 사무실은 대학교 동아리방을 떠올리게 했다. 그 분위기가 ‘비디오 테이프’와 겹치면서 오히려 편안함을 주었다. 밤 늦게까지 환한 불을 밝히고 발걸음을 한번씩은 잡는 동네의 작은 비디오 가게. 영화와 만화책으로 가득찬 그곳은 현실속의 고민, 어려움을 잠시나마 잊게하는 포근한 놀이터다.

앞으로 나이를 더 먹고 현실적 고민을 하게 되면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노조가 항상 동네 어귀의 친근한 비디오 가게처럼 행복한 느낌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노재현 스포츠레저부

## 18대 집행부원으로서의 1년

### “회사발전을 위한 노조 역할 인식”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등 성과”

18대 노조 집행부에 몸담은지도 9개월이 지났다. 전임 현윤경 여성부장을 이어 중간에 합류했지만 나름대로는 늦은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행부 일을 시작했다.

노조일을 하다보니 그저 밖에서 노보나 사보를 통해 알았던 것보다 회사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됐고, 회사 발전을 위해 노조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깨닫게 됐다.

개인적으로 처음 집행부에 참여할 때의 각오와는 달리 노조 활동에 집행부원이라는 이름으로 무임승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다른 집행부원들에 비해 여성부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텐데 생각만 하고 미처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또 집행부 회의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여름 워크숍에도 출장일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 정재용 위원장과 다른 집행부원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았다.

여담이지만 여성부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노조 여성부장’이라고 소개하면 좀 더 ‘특별하게’ 대해 준 선배들도 많았던 것 같다.

18대 집행부는 나름대로 올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한다.

노조는 금년들어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문제 적극 대응,

전 지사 방문 간담회 등 5가지 중점 추진 목표로 정해놓고 27차례의 집행부 회의와 여름 집행부 워크숍 등을 통해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우선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문제와 관련, 사내 공감대 형성과 국회 등 추천권자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지난 10월 뉴스통신진흥회가 발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 회사 구성원들의 참여한 관심사안이었던 임금피크제와 인사과 과제 문제도 전사원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조는 전 지사를 순회, 간담회를 갖고 지방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했으며, 본사 각 부서의 조합원들과도 수시로 접촉, 사내 융합과 화합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연말에는 무엇보다도 임단협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노조 송년회에서 다짐한 대로 내년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것이 자리를 빌어 다시 다짐해 본다. 이 다짐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노조 집행부 모두의 다짐이기도 할 것이다. ■

황희경 금융부  
제18대 노조여성부장

### 노조 조합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지급

노조는 연말연시와 창사 25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전 조합원들에게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했다. 노조는 조합비를 절약해 지난 3월 노조 창립기념일에 이어 두번째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노조는 상품권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특파원과 해외 연수자에게는 현금을 입금했다.

또 노조는 한해를 보내는 소회의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사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 조합원 9명, 비조합원 9명 등 총 18명의 사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했다. ■





# “새해 새 경영진 선임 등 슬기롭게 해결하자”



정재용  
제18대 노조위원장

조합원 여러분!  
을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병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노조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엔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을유년은 연합뉴스사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큼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회사는 국가기간 통신사로서의 법적지위와 창사 25년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텍스트 뉴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이룩하는 한편 KTX 이동사업, 영상콘텐츠 서비스 등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멀티미디어 종합통신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이러한 회사발전은 묵묵히 많은 바 임무를 다한 경영진과 조합원을 비롯한 사원들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지만, 협력적인 노사관계에도 힘입은 바 크다고 봅니다.

18대 집행부는 지난 3월 위원장 취임사를 통해 밝힌대로 그동안 회사측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회사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자평합니다.

첫째,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뉴스통신진흥회 지난 10월 출범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여야 정당대표들과의 접촉과 성명 발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이후 2년 가량 표류해온 진흥회 구성 문제의 매듭을

푸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저희 18대 집행부는 본사 및 지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 특파원 방문 등을 통해 사내화합을 이끌어 내는데도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11월말까지 12개 지사를 빠짐없이 방문해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노사협상에 적극 반영한 바 있습니다.

셋째, 노사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전사원 직접투표라는 민주적 방식을 통해 원만하게 처리했습니다. 시범실시중인 인사고과제 평가방식을 보완하는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넷째, 2005년 임·단협 협상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18대 집행부의 작은 성과는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신 조합원들의 덕분입니다.

새해에도 조합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도 회사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증대를 위해 많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노조에 대한 관심과 단결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차기 경영진 선임과정에서 사장추천위 구성을 통한 공모제 방식의 전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또한 차기 경영진 선임과정에서 사내갈등이 빚어져 연합뉴스의 발전 역량이 소진되는 일이 발생해선 결코 안됩니다. 노조

는 사장 선임과정에서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영상콘텐츠 서비스 등 2005년에 새롭게 출발한 각종 뉴미디어 사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사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사측도 영상콘텐츠 강화, 데이터방송 본격화, KTX 이동사업 및 인천공항철도 광고사업 등 뉴미디어시대에 대비한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새해에는 방향성과 수익성을 꼼꼼이 따져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롭게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등 중간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내 각 실국 및 부서간 협력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사내엔 제작·비제작 부서, 본사와 지사, 호봉사원과 연봉사원간 보이지 않는 장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연합뉴스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아무쪼록 새해에는 이러한 예상되는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연합뉴스가 탄탄한 반석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28일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 위원장 정재용 올림

## 이달의 조합활동

- 12월 1일 : 노사는 정위원장과 경영진간 막후협상 결과를 토대로 '임단협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총액 대비 5.2%를 골자로 하는 '2005년 임단협안'에 잠정합의..
- 12월 6일 : 정 위원장은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에 참석, 황우석 교수 파문 등에 대한 언론노조 차원의 대책을 논의..
- 12월 6일 : 종로구청의 협조로 관내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 아동(57명 아동)들을 초청해 장학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고 인근 중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격려..
- 12월 7일 : 잠정타결된 임단협을 추진하기 위한 제3차 대의원대회가 열려.. '2005년 임단협 잠정타결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친 결과 만장일치로 추진됨..
- 12월 9일 : 대의원대회에서 추진된 임단협안에 대한 공식 조인식이 열려.. 정위원장과 장사장은 조인식 인사말에서 '지난 1년동안 힘차게 뛰어온 전체 사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
- 12월 20일 : 제27차 집행부회의를 열어 한해동안 펼친 노조활동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2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이어 참석자들은 회사

인근 한식당에서 송년 저녁모임을 갖고 폭탄주를 마시면서 새해에는 더욱 노력하는 집행부가 될 것을 다짐하기도..



- 12월 21일 : 정위원장은 언론노조 12차 중앙집행위에 참석, 2006년 사업계획안 등에 대해 논의..
- 12월 21일 : 도사무국장은 기획부장 및 인사부장과 만나 특파원 학자금 보조비 인상안, 사우회 대출금리 인하 등 임단협 타결내용 가운데 추후논의키로 했던 부분에 대해 재점검..